

“처음엔 아이 위한 육아, 이젠 나를 세워줄 직업”

광주 동구 경단녀 대상 ‘그림책 미술지도사 과정’ 눈길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참여한 강좌였는데 갈수록 내 인생에 대한 욕심이 커졌어요. 자격증 따서 꼭 다시 취업하고 싶어요.”
광주 동구에서 지난 9월 실시한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단녀)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가운데 ‘그림책 미술지도사’ 강좌에 참여한 노명희(43·여)씨는 인생 2막을 꿈꾼다. 결혼과 출산을 거치며 15년 다녔던 직장을 그만둔 노씨는 전업주부로 5년을 지냈다. 재취업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흐릿해질 무렵, 동구청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접했다.

그림책 속 글·삽화 읽고 아이와 미술 작품 완성 관련 자격증 취득까지 약 한 달 반 수강 과정

‘육아의 직업화’ 가능 일·가정의 양립 기대

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긴 것이다. 노씨는 “이 직업은 아이들의 마음을 읽는 게 중요하다. 책을 잘 읽어주는 스킬, 미술을 잘 하는 능력도 있으면 좋겠지만 각각 성향이 다른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잘 다독여 줘야한다”며 “아이를 키워본 입장이라 아이들의 표정과 눈빛을 보면 유추할 수 있다. 이 교육을 통해 내 아이들과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의무로만 여겨졌던 육아가 경단녀의 인생 2막을 활짝 열어주는 직업이 됐다. 강좌에 참여한 경단녀는 이 과정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란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됐다. 오는 31일까지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한 이들은 독서 미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어린이집 교사나 개인 선생님 등으로 연계 취업할 예정이다.



광주 동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 그림책 미술지도사 과정에 강사로 참여하고 있는 이은경(오른쪽) 강사가 수강생들과 함께 미술 작품 만드는 과정을 지도하고 있다.

독서 미술지도사에 대한 매력과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지역에 처음으로 과정을 신설해 많은 경단녀들을 만나고 있는 이은경 강사는 “엄마가 직접 배워서 아이를 가르쳐줄 수 있으면 더 없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배우게 됐다”며 “나뿐만 아니라 많은 경단녀 분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내 아이를 위해, 자신을 위해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강사는 현재 동구청 뿐만 아니라

관내 문화센터 등지에서 많은 경단녀를 대상으로 그림책 미술지도사 과정을 전파하며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이 강사는 “엄마들은 그림책 책 속 글만 읽어준다. 그런데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다. 엄마는 그런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고 질문해줘야 한다”며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배웠으면 좋겠다. 용기를 내서 도전해보고 직업으로 연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림책 미술지도사 외에도 동구청은 관내 거주 경단녀를 대상으로 정리수납전문가, 양금플라워 떡케익 데코 지도 1,2급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재료비, 수강료, 교재비 등 일체의 비용을 동구청이 지원하고 참가자들은 점점료만 부담하면 돼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글·사진=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

문화 라운지

광주과학관 6주년 축제 시월에(愛) 과학으로 물들다

국립광주과학관 개관 6주년 기념 가을과학문화축제 행사가 내달 3일까지 개최된다.
‘시월에(愛) 과학으로 물들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사이언스 메이킹, 과학을 생각하며 배우는 사이언스 스킨, 예술과 과학이 만나는 사이언스 라운지, 호남권과학관과 함께하는 사이언스 투게더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으로 채워진다.
사이언스 메이킹에서는 수직개선 EM공 만들기, 친환경 생활용품 만들기, 미니 에어로켓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축제 기간 중 평일 4회, 주말 6회 운영한다.
사이언스 스킨 행사 중 하나로 마련된 드론 아카데미는 23일까지 과학관 주출입구 필로티에서 열린다. 어린이 구연동화는 매주 일요일 오후에 개최되며, 11월 2일, 3일에는 과학관 직원이 전하는 북콘서트를 북카페에서 개최한다.
사이언스 라운지에서 열리는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복합공연은 가을과학축제의 열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과학뮤지컬 장영실을 찾아라(26일), 천체투영관 콘서트(11월3일), 팝페라 공연이 펼쳐지는 희망나눔 콘서트(11월3일), 오페라 등 스위스민속음악 공연(11월2일) 등이 마련돼 있다. 또 야외광장에 설치된 VR(가상현실) 시뮬레이터도 매일 체험해 볼 수 있다.
11월3일 하루동안 과학관 주출입구 필로티에서는 도서, 장난감 나눔장터가 열린다. 이 코너에서는 1만원 이하의 도서와 완구류를 만날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동과학차 4D영화 상영회, 샌드드래프트, 에어로켓 나로호 조립키트 만들기도 만날 수 있다. 축제 기간 중에는 과학관 전시해설 유튜브 공모전, 우수과학도서 소감문 공모전 등도 개최된다.
가을과학문화축제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입장객 최고기록 경신

18일 하루에만 4136명 다녀간 결한 전시구도·특별관 운영 요인은 ‘대중화 전략’ 주요

관람객의 호평 속에 제8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입장객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재)광주디자인센터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본전시 유료 입장객은 4136명으로 올해 행사에서 하루 최대 관람객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행사에서 하루 최대 방문객을 기록했던 지난 9월(3000여명)보다 30% 가량 늘어난 수치다.

올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높은 인기를 얻게 된 데는 대중화전략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행사까지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예술성 중심의 디자인 전시로 다소 난해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광주디자인센터는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올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람객을 배려한 간결한 전시구도와 함께 어린이 참여 작품, 관람객 체온에 반응하는 작품, 마음상태를 표현한 이모티콘 스티커 붙이기 등 관람객 참여

를 유도한 것이 호응을 이끌어 냈다.
또 광주디자인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은암미술관 등 특별관 운영도 관람객 접근성을 높이는 대중화에 기여했다. 무료로 운영됐던 특별관 전시는 디자인 작품의 매력을 제공함으로써 관람객이 본전시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위성호 광주디자인센터 원장은 “이번 전시가 어린 관람객들에게 창의적 사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람후기들과 호응으로 응답해 주신 관람객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



지난 18일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관람하려는 학생들로 전시장이 붐비고 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제8회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전남일보 구독신청 배달·전단배포안내

지역	지국명	전화	배달구역
동구	남광	225-2082	동구 수기동 45-6/금동, 남동, 서석동, 북로동, 관산동, 학동 일부
	학운	234-5662	동구 학동 904-100/학동, 학동, 운림동, 소태동, 용산동, 내남동
	중앙	222-2120	동구 산수동 556-27/중앙동, 산수동 일부, 지산동, 장동, 서석동 일부, 계림동 일부
	개밀	225-2082	동구 수기동 45-6/송정로, 관남로, 대의동, 호남동, 관동, 수기동, 대인동 일부, 북로동, 학동
	상우	225-2084	동구 개밀동 215-26/개밀동, 중흥동 일부, 동명동 일부, 산수동 일부, 대인동 일부, 장동
서구	문흥	371-9584	서구 문흥동 327-6/상우동, 지현동, 생촌동, 상우지구, 마복동, 백신동, 유촌동 일부
	문주	376-7153	서구 생촌동 1230-6/화정3동, 화정4동, 영주동, 금호동, 상우동 일부, 생촌동 일부, 마복동 일부, 풍양동 일부
	문암	010-8644-3993	서구 생촌동 432-28/매월동, 풍림동
	광천	382-5788	서구 광천동 710-50/광천동, 유덕동, 내원동, 유촌동 일부, 생촌동 일부, 농성동 일부, 화정동
	월산	365-9580	남구 백운동 602-20/월산동, 월산2동, 월산3동, 백운동, 서동, 서동, 안동 일부, 양림동, 구동
남구	진월	671-7276	남구 진월동 아남01비트 상가1038/진월동, 주월동 일부, 송암동
	노대	674-3581	남구 진월동 아남01비트 상가1038/노대동, 송하동, 덕남동, 임원동, 지석동
	화정	365-8970	남구 주월2동 73-17/농성동, 화정동 일부, 월산4동, 월산5동, 양동 일부, 주월동 일부
	봉선	653-1920	남구 봉선동 163-21/봉선동, 봉선동 일부, 주월동 일부
	문흥	267-9553	북구 문흥동 989-5/문흥동, 각화동 일부, 오지동 일부, 망월동
북구	두암	263-3105	북구 두암동 851-22/각화동 일부, 두암동
	홍봉	261-1503	북구 우산동 597-7/문흥동 일부, 우산동 일부, 용봉동 일부
	일곡	573-3200	북구 일곡동 838-8/일곡동, 삼각동 일부
	오치	265-2923	북구 오지동 908-24/오지동, 매곡동, 용봉동 일부, 삼각동 일부
	양산	574-3745	북구 양산동 478-30/양산동, 연재동, 신광동, 문촌동, 효령동, 풍두동, 일곡동 일부
구	유동	225-2082	동구 수기동 45-6/산전동 일부, 인동, 중흥동 일부, 유동, 누운동, 북동
	우산	261-1503	북구 우산동 14-7/우산동, 산전동 일부, 용봉동 일부, 중흥동 일부, 문흥동 일부
	운암	527-6093	북구 운암동 479-35/운암동, 동림동, 산전동 일부, 용봉동 일부, 경신1동, 동진동
	침단	971-7374	광산구 월계동 790-5/월계동, 대촌동, 침단지구, 비아동, 생암동, 용두동, 우봉동, 월송동, 산월동
	광하	952-1687	광산구 월곡1동 581-16/월곡동 일부, 신정동, 운남동
산구	신환	954-1323	광산구 신기동 920-1/신정동, 신기동 일부
	수환	959-1414	광산구 장지동 1327/수환동, 신기동 일부, 도전동, 인창동, 오산동, 신계동, 하남동, 흑석동, 갈수동, 사동동, 북문동
	광산	944-0993	광산구 도산동 1283-11/송정동, 소촌동 일부, 평동, 대촌, 일곡, 옥동, 광동, 도산동, 신촌동
	월곡	951-9954	광산구 월곡동 58-7/월곡동 일부, 광산구 우산동, 소촌동 일부, 신정동
	나주	빛가람	0611331-8790

• 문의 : 062-510-0471